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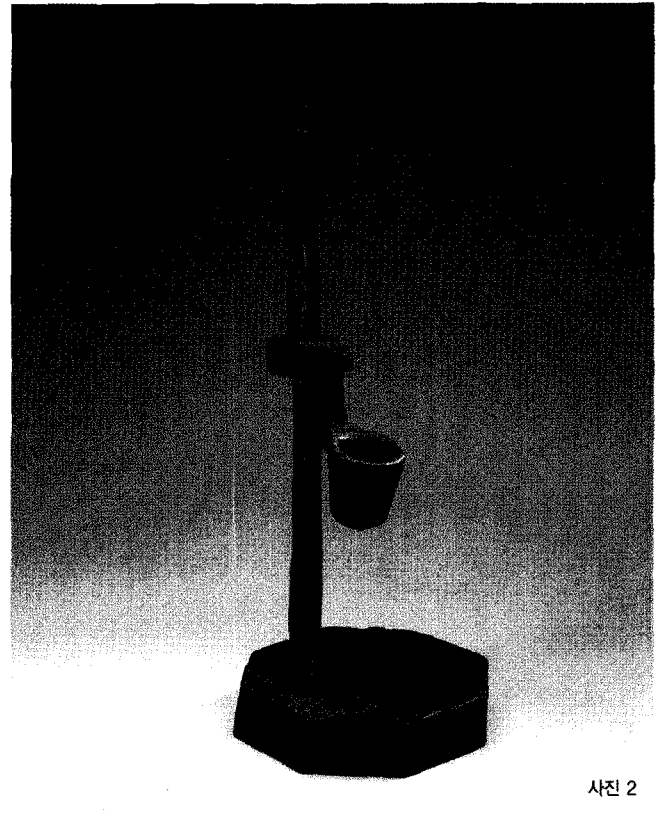


사진 2

##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 ㉔ 나무등잔걸이(木製燈檠)

나무로 만든 등잔대이다. ‘등걸이개’라고도 하며, 옆에서 보면 마치 혀를 쭉 내민 듯 한 모습에서 익살스럽게 ‘혓바닥등잔(대)’이라고도 부른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가운데 등잔을 올려놓는 등반(燈盤), 등반을 고정할 수 있는 기동인 등반봉(燈盤棒), 그리고 바닥에 등반봉을 받치는 받침굽이 있다. 등반은 등반봉을 위아래로 오르내려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봉 뒤쪽 걸이용 단(段)에 걸어 고정시킨다. 이때 등반이 앞쪽으로 약 45° 정도 기울게 되기 때문에, 바로 등잔을 올려놓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홈을 파서 등잔을 고정하거나(사진 2) 또는 등반 아래쪽에 두 개의 뾰족한 심을 박아 그것으로 등잔을 받치도록(사진 1) 고안하였다. 그리고 등잔 아래쪽에 기름받이를 달아 등잔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잔걸이는 나무뿐만 아니라 무쇠나 놋쇠, 청동, 빚지(紙繩) 등의 재질로 만들기도 했는데,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아무래도 다른 재료보다 구하기 쉽고, 가공(加工)하기도 수월해 전문 장인의 솜씨를 빌리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만들어 쓰기가 쉬웠을 것이다. 금속재질이나 빚지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멋이 아취를 더해 준다.

설명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사진 1) 나무등잔걸이(木製燈檠) 조선시대 //  
밑지름 30.5cm, 높이 84cm //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2) 나무등잔걸이(木製燈檠) 조선시대 //  
밑지름 21.6cm, 높이 57.8cm // 국립민속박물관